

# 수 학 보 고 서

소 속	경영대학/경영정보학과	
파 견 국 가	스페인	
파 견 대 학	Universidad de Vigo	
파 견 기 간	시작	2024년 1월
	종료	2024년 7월

준비과정	<b>국제교류프로그램에 지원하기까지 과정</b>
	휴학 후 진로 고민 중에 대학 생활 중에만 할 수 있는 경험을 놓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b>파견교 지원 과정</b>
	교환학생 준비 중 가장 공을 들인 부분은 자기소개서 및 면접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스페인 해안 도시로 파견 가고 싶었기 때문에 비고 대학교를 선택했고, 비고에 간 사람들의 후기를 블로그에서 찾아서 읽으면서 파견 생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웠습니다. 미리 파견교에서 수강할 수 있는 강의들의 강의계획서를 읽고 숙지해둔 점을 면접에서 좋게 봐주신 것 같습니다. 어학 성적은 학교 영어 강의 성적으로도 지원이 가능하던 파견교들이 없어지기도 했고 전학기와 비교해 점수 기준이 올라가는 등의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는 모집 공고 이후 급하게 토플 시험을 봤고 운 좋게 점수가 잘 나와줬지만,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걱정을 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b>파견국가 출국 준비 과정 (비자, 항공권, 준비물 등)</b>
<b>-비자</b> 비자는 대사관에서 안내하는 서류를 잘 준비하기만 하면 크게 문제되는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잘 모르겠는 경우 검색해보면 블로그에 다양한 후기들이 있으니 참고하시고 상황에 맞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b>-항공권</b> 항공권의 경우 최대한 빨리 구매하는 것이 저렴합니다. 중국 항공사의 경우 짐 규정이 빡빡하거나 자가 환승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격 메리트가 있고, 중국 항공사를 제외하면 가격이 올라가지만 조금 더 마음 편안하게 갈 수 있습니다. 비고의 경우 직항은 없기 때문에 환승은 필수라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합니다.	

	<p><b>-준비물</b></p> <p>교환학생이 되고 나서 설레는 마음에 ‘스페인에 가면 이런 것도 하지 않을까?’ 하고 평소에 잘 안 쓰던 물건들도 챙겼었는데 한국에서도 안 하는 걸 파견국에 간다고 해서 하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한식의 경우에도 고추장 간장 등 필수적인 재료들은 구할 수 있으니 좋아하지만 현지에서 구하기 어려운 것들 위주로 가져 오는 것을 추천드립니다.</p> <p>제가 생각하는 가장 줄여야 하는 짐은 옷입니다. 생활하는 동안 스타일이 바뀌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와서 버리고 갈 옷이 아니라면 최대한 줄이시고 와서 구매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여기에도 자라, H&amp;M 등 익숙한 브랜드들이 있고, 1월과 7월에 세일을 많이 해서 상당히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p>
<b>파견 학교</b>	<p><b>공항 픽업 &amp; 오리엔테이션</b></p>
	<p>비교 대학교의 경우 ESN을 통한 버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버디가 픽업이 필요한지 물어보고 도와주는 경우도 있고, 어떻게 시내로 오는지 알려주기도 합니다. 저는 짐이 많아서 그냥 택시 이용했습니다. 버디 프로그램의 경우 ESN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통해 공지되니 신청하시면 됩니다.</p> <p>오리엔테이션 날에는 기념품을 받고 축사를 조금 듣고 난 후 스페인어 시험을 봅니다. 이 날 성적을 바탕으로 어학당 레벨이 정해집니다.</p>
	<p><b>수업 &amp; 학교 활동</b></p>
	<p>수업을 듣는 것은 한국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영어 단어를 스페인어를 읽는 방식으로 읽으시는 교수님들이 많으셔서 처음에 어려움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적응되면 이해할 수 있으니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시험 등에서 종이 사전을 이용하게 해주는 경우가 있으니 필요하실 것 같다면 영한 사전을 사오시길 바랍니다. 여기에서 구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p> <p>학교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메일로 보내주시기는 하나 스페인어로 진행되는 강연 등이라 참여하는 교환학생분을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대신 ESN에서 다양한 이벤트를 정말 자주 진행하기 때문에 여기 방문해 다양한 경험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할 수 있습니다.</p>
<p><b>기숙사 및 학교 내 편의 시설</b></p>	
<p>학교에 기숙사가 있기는 하나 학교에서 시내까지는 버스로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학교는 산 속에 있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생활하는 친구는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p> <p>단과대마다 카페테리아와 자판기가 잘 구비되어 있어 연강 있는 날에는 카페테리아에서 커피와 샌드위치를 먹곤 했습니다. 식사인 메뉴 델 디아는 날마다 메뉴가 달라 식사로 좋으나, 판매하는 카페테리아가 정해져 있으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p>	

	<b>거주지 주변 지역 정보</b>
	비고는 관광지로는 그닥이지만 생활하기에는 훌륭한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차가 없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Rua de Urzaiz 근처에서 생활합니다. 이 길 근처에 살면 비알리아(Vialia)와도 가깝고 꽤 먼 곳이어도 걸어서 2-30분 정도면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비알리아에 기차역과 버스 정류장이 있어 여행을 가기도 좋고, 큰 마트도 있어 장을 보기도 좋습니다. 한국에서 같이 파견되는 분과 가까운 곳에 집을 구하면 후에 교류하기 좋다고 생각합니다.
	<b>파견 대학 소재지 지역 정보</b>
<b>주변 환경</b>	앞서 말씀드렸듯이 비고는 관광지로는 큰 특색이 없는 도시입니다. 그나마 Castelo do Castro가 올라가긴 힘들지만 올라가면 일몰 맛집이라 종종 가게 되는 명소입니다. 이 외에는 Cies 섬 정도가 관광지입니다.
	바다의 경우 항구 도시 느낌이 강해 보통 생각하는 해수욕 가능한 바다 중 가장 가까운 곳이 Playa de Samil, 사밀 해변입니다. 근데 저는 사밀보다는 조금 멀지만 Playa de Patos가 훨씬 좋았습니다. ESN에서 진행하는 서핑 이벤트에 참가하면 가게 되는 해변인데, 저는 이벤트 참여하지 않고 갔지만 좋았습니다.
	갈리시아 지역에서 그나마 유명한 도시인 Santiago de Compostela는 기차 종류에 따라 1시간-2시간 정도면 갈 수 있습니다. 순례길의 종착지기 때문에 한 번쯤 가볼만한 여행지입니다. 렌페에서 아보노 티켓을 구매하면 3개월 동안 20유로에 무제한 이동이 가능한데 이 티켓을 구매하시고 산티아고 공항에서 출발해서 여행을 다니시길 추천드립니다. 같은 행선지여도 비고 공항에서 출발하는 것보다 파격적으로 저렴합니다. 자매품으로 포르투로 이동해 출국하는 방법도 있으나 이 구간은 국경을 넘는 관계로 아보노 상품이 없어 버스나 기차 티켓을 또 구매해야 합니다. 가격 잘 살펴보고 즐거운 여행하시길 바랍니다.
<b>비용</b>	<b>등록금 (해당 학생만)</b>
	등록금은 명지대에 납부했습니다.
	<b>기숙사 비용 (해당 학생만, 학기당)</b>
	비고의 경우에는 기숙사를 잘 이용하지 않고, 플랫을 구해 사용합니다. 학교에서도 연결된 플랫 리스트를 주긴 하나 큰 도움이 되지는 않았고, 보통 이데알리스타(idealista)를 통해 집을 구합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체로 한 달에 300-350유로 정도의 피소에서 생활하는 것 같습니다. 미리 연락하고 집을 구해오는 경우 같은 가격에도 조금 더 크고 좋은 방을 구할 수 있습니다. 월세에 Gasto가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총 비용이 300유로 정도면 적당한 가격에 집을 잘 구한 것 같습니다.
<b>추가 비용 (교재비, 보험 등)</b>	
비고에서는 무비(moovi)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전자 출결을 하고 강의자료를 받	

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책이 따로 필요하지는 않아 추가 비용이 없었으나, 어학당 수업을 듣는다면 교재 비용이 필요합니다.

보험의 경우에는 비자 발급 시 필요한 보험 외에 추가로 들지는 않았기 때문에 추가 비용은 없었습니다.

### 생활비

유럽의 경우 외식 물가가 한국보다 비싼 편입니다. 프랜차이즈 버거 세트가 10유로, 약 1만 5천원 정도입니다. 점심 시간에 음료를 포함한 할인 메뉴인 메뉴 델 디아를 판매하는 식당이 많은데, 평균적으로 13-15유로 정도는 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식사를 하면 인당 20유로를 넘어가는 경우도 꽤 많아 외식을 자주 한 달에는 식비가 상당히 나왔습니다.

대신 장바구니 물가는 싼 편이라 식료품을 구매해 직접 요리해 먹으면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고기도 저렴한 편이고, 과일도 한국과는 종류가 다르고 신선해서 자주 사먹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요리를 잘 안 했는데 파견 이후 요리 실력이 많이 늘었습니다.

교통비의 경우에는 Pass Vigo카드를 발급하면 시내 버스를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유로만 충전해도 충분한 경우를 많이 봐서 일단 20유로 충전하고 다 쓰시면 충전해서 사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이 외에도 avanca에서 2유로를 내면 파란색 갈리시아 버스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 카드는 빠또스 해변에 가는 버스를 이용하거나 산티아고 등 다른 도시에서 이용할 수 있어 발급받고 10유로 정도 충전해서 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통신 요금의 경우 대부분 휴대폰을 이용하는 것 같고, 월에 10유로-15유로 정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휴대폰 매장마다 직원이 다른 상품을 추천해주기도 하고, 같은 매장에서든 직원마다 말이 달라지기도 하니 꼼꼼한 분들은 며칠 로밍해오시고 여러 군데 돌아다녀본 후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한달 평균 지출 비용

저는 달에 생활비, 주거비, 여행 비용 모두 합쳐 1500-1800유로 정도는 고정적으로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외식을 최대한 줄이고 여행 비용도 아껴 쓴다면 더욱 절약이 가능했을 것 같으나, 다시 하기 어려운 경험이라는 생각이 들어 평평 쓰며 즐겼던 것 같습니다.

### 교환학생 기간 동안 느낀 점

교환학생이 못 잇을 경험이라며 꼭 해봐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좀 호들갑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저런 생각에 하지 않았더라면 크게 후회할 경험인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 혼자 생활하면서 6개월의 긴 시간을 지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하는 좋은 사람들과 좋은 환경이 있는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환상을 갖고 온다면 깨지는 일이 더 많을 것 같으나 마음을 비우고 온다면 더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으실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어 행복했고, 즐거웠습니다.

사진 첨부 (최소 5장)



Islas C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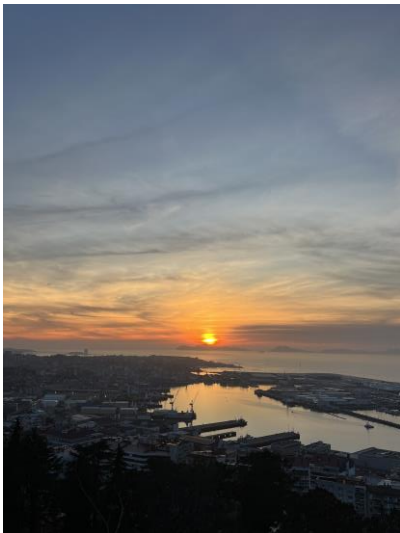
Playa de Patos



Playa de Samil



ESN 이벤트와 Avigo



Castelo do Castro



Vialia



필름카메라로 찍은 비고 대학교



필름카메라로 찍은 비고